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세밀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성탄절이 코앞으로 닥쳐 왔지만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없다. 한 해를 보내고 맞는 기대와 희망의 소리가 사라졌다. 대신 민생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무성하다. 당장 내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과 환속만 가득하다.

차지하는 비중은 13.0%로 작년 같은 기간의 12.3%보다 0.7%포인트 급상승했다. 이 비중은 지난 2001년(1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앵겔계수는 19세로 독일의 통계학자 앵겔이 발명한 법칙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

실종된 民生 어디서 찾나

의 비중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간다.

뿐만 아니다. 주류·담배의 지출액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심지어 지식의 교육문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국민들이 교육비마저 아꼈다. 올 들어 9월까지 명목 교육비 지출액은 30조5천35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조9천880억원보다 2.2%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 증가율은 1998년(-3.2%) 이후 최저다. 민초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전 이 없다는 점이다. 내일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면 오늘의 고통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의 얼굴에는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현실을 직시했는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 내년 업무보고의 첫 주제를 '고용과 민생안정'에 맞췄다. 그러면서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쯤이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은

문고 싶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국가의 폭격과 브랜드를 올릴 수 있다고 믿는가. 이명박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 풍요로움, 아니 최소한도 '구복지루'만큼은 될 것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의해 탄생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현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민생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민생은 정치의 지향점

정치는 모름지기 물 흐르는데로 가야 한다. 순리(順理)를 좇는 정치가 바른 정치이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다. 교수신문이 올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압축한 한자성어로 선정한 '바른길'을 되두고 역자로 섯길과 굽은 길을 간다는 방곡곡경(秀岐曲逕)의 뜻을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 '구복지루' '구지부득' '방곡곡경'은 단순한 사자성어가 아닌 오묘의 민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공무원 워크숍에서 "내년에도 희망의 싹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도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그쳤다. 당시 대통령이 어떤 뜻에서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 1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둔 세밀에 대통령 자신과 정치인들은 이 말의 엄중함을 새겨야 한다. 국민들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지향점은 없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시설

한전 부지매입 혁신도시 탄력 기대한다

지지부진하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사학연금공단에 이어 전력거래소가 연내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사회에서 부지매입 건을 통과 시키기 위해 28일 또는 29일께 한전 본사에서 도시공사와 부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3개 기관이 예정대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면 혁신도시 부지매입 계약체결 기관은 지난 7월 말 계약을 맺은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함께 4곳으로 늘어난다.

올 한해 예산 43조3천억원에 분사 직원만 1천400여명인 한전이 계약할 부지는 14만9천372㎡면적으로, 토지구입대금만 676억여 원에 이른다. 이전 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전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가 빨라져 나주혁신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종시 여파로 혁신도시 조성 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많았다. 지방채를 발행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나가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은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느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심상치 않은 지방 민심을 인식한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에 가속도를 붙이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매입 가격 인하와 같은 꼼수를 제시하며 부지매입을 미뤘던 공공기관들의 눈치 보기가 사라져야 한다.

부지 매입에 이어 청사 설계와 신속 등 후속작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2012년까지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혁신도시 조성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이전을 독려하고, 공공기관들도 이전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불황도 비껴가는 세밀 이웃사랑 릴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10 나눔캠페인'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더 높고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온정의 손길도 뜸하다. 장기간의 불황 여파 때문이다.

그러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은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연탄이나, 김치, 쌀 등 불우이웃의 겨우살이에 꼭 필요한 물품 기부 등 직접봉사는 예년 못지않게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기가 다소 나아졌지만 국민층이나 사회 복지시설의 어려움은 나아진 게 없는 사정을 감안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 및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지난 21일 현재 지난해보다 각각 1억2천만원, 5천만원이 줄었다. 하지만, 현금 기부 대신 물품을 기증하는 사람의 손길은 오히려 늘고 있다. 광주 시 남구청의 경우 올해 물품 기금액이 8천만원 상당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금 대신 3천여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고 화순군은 쌀 1만 다발(1t 트럭 100대 분)을 불우이웃 100세대에 전달했다. 광주 진월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3천500만원 상당의 쌀과 꿀을 기부하는 등 물품 기부 릴레이는 무엇보다 불황으로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볼 수 있다.

계속된 불황과 혹한, 급등한 연료비 등으로 불우이웃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신종플루 탓에 자원 봉사 및 후원자의 발걸음이 거의 끊긴 상태다. 조그만 정성이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에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자.

물품기부는 독거노인 등에게는 현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 같은 물품 기부 릴레이는 무엇보다 불황으로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볼 수 있다.

無等鼓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 음악도 듣고... 만능 스마트폰으로 알려진 아이폰(iPhone)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다. 미국 애플사가 지난 2007년 1월 출시한 아이폰은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선보인 지 열흘 만에 가입자 수 1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휴대전화 역사상 찾아 보기 힘든 진기록이다.

들어와도 너무 깊이 들어온 '외제'라는 점이다. 한때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치부됐던 외국산 제품들이 중산층까지 소비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외에 일본산 자동차, 유행의 변화에 맞춰 즉석으로 다품종 소망을 생산하는 스마트 패션인 유니클로·자라 등에도 젊은 층은 환호한다.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한 KT마저 놀랄 정도다.

소비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민감할 뿐 아니라 이기적인 패턴을 보인다.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이라면 더 이상 내 고장, 내 나라를 고집하지 않는다. 국가 간의 경계가 참호지 두께보다 얇아진 세대에서 어느 기업이 미우나 고우나 국산을 애용해야 한다는 '착한 소비'만을 주장한다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물질 모르는 소리라며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

착한 소비는 그만



'1천원 씩'의 대명사인 일본의 다이소도 최근엔 상표로 광주 충장로에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다이소 매장은 전국적으로 500개를 돌파한 상태라고 한다.

신발전문 유통매장인 ABC마트 역시 서울의 스트리트 패션을 휩쓸면서 지방에서도 맹위를 떨칠 기세다. 1966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런칭된 스니커스 제조업체인 반스(Vans)가 2002년 ABC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쇼핑몰을 통해 세몰이를 하고 있다.

이들 상품의 공통점은 우리의 일상에

이들 상품의 공통점은 우리의 일상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핀칼럼

이병우



컴퓨터에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솔자리에 있다. 소주와 맥주 같은 주류를 컴퓨터 본체라고 치면 안주는 주변기기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여러 가지 사양이 있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드웨어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다.

외치면 '아싸'를 후창한다. 아싸는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뜻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버전도 있다. '마셔부림'이라고 선창하면 '마시당계'를 외치면 된다. 비슷한 것으로 '마셔 부림'하면 '조아부림'이 있다. 약간 민망한 구호도 있는데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를 줄여서 '성행위!' 하면 후창으로 '하! 하! 하!'를 외친다. 좀 더 직설적으로 '빠빠시'하면 '세우자!'로 후창하는 건배구호도 있다.

술자리의 소프트웨어, 건배사

사이다. 연말 송년 모임에 참석하면 건배 제의할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잘 활용하면 자신을 확실하게 알리면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이다.

외치면 '아싸'를 후창한다. 아싸는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뜻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버전도 있다. '마셔부림'이라고 선창하면 '마시당계'를 외치면 된다. 비슷한 것으로 '마셔 부림'하면 '조아부림'이 있다. 약간 민망한 구호도 있는데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를 줄여서 '성행위!' 하면 후창으로 '하! 하! 하!'를 외친다. 좀 더 직설적으로 '빠빠시'하면 '세우자!'로 후창하는 건배구호도 있다.

멋진 건배사는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물론 건배를 제창하는 사람의 인격과 지적 수준, 그리고 모임의 성격과 앞으로의 활동 영역까지도 말해준다. 건배사도 엄연한 스피치이다.

영화 속에 나오는 최고의 건배사는 무엇일까?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한 영화 카사블랑카는 감미로운 명대사로 유명하는데 그 중에서 멋진 건배사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영어로는 "Here's looking at you, kid!"이다. 한 글 번역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여주인공의 눈을 응시하며 이 말을 했기에 명대사로 두고두고 기억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배'나 '위하여'가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버전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건배사가 생겨나는 것은 다이나믹 코리아의 한 단면일지도 모른다. 이 또한 술자리의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건배사로 '당신 멋져'가 있다.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저주며 살자!'의 머리글자만 따서 만든 구호이다. 또 '일심백천만'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의 좋은 일만 있으면, 열 번 웃고, 백 자의 글을 쓰고, 천 자를 읽고 만 보를 걷자는 뜻이다.

변사또: 변치 말고 사랑하고 또 만나자. / 당나귀: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여! / 진달래: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 원더걸스: 원하는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걸러서 스스로 마음껏! / 오바마: 오직 바라는데로 마음껏! / 오징어: 오랫동안 그렇게 어울리자.

아일랜드 출신의 대 시인 윌리엄 예이츠는 "술의 노래"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술은 입으로 흘러들고 / 사랑은 눈으로 든다 / 우리가 늙어서 죽기 전에 / 알아야 할 진실은 이것뿐 / 나는 술잔을 입에 대고 / 그대를 바라보며 한숨 짓노라" 술과 사랑, 나이 들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다. 멋진 건배사와 함께.

<보혜양조 홍보이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핀상'을 수여 합니다. 은핀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핀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김해중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혀를 '글썽' 차고 얼굴을 찌푸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G20정상회의 참가국, OECD 가입 국가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진 의식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무리일까?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참나에도 쏟아져 나오는 지식정보의 범람! 무인도가 아닌 이상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의 일상은 갈수록 질서를 잃어간다.

할 것이다. 더 이상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기초질서 지키기 거리 홍보'나 시민단체의 '환경 정화 활동'을 대안한 일인 듯 보도하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배려, 기초질서 확립의 힘

체계 등 모두의 양보와 참여가 필요한 약속이 늘어나고 있다.

할 것이다. 더 이상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기초질서 지키기 거리 홍보'나 시민단체의 '환경 정화 활동'을 대안한 일인 듯 보도하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옛 농가에서처럼 '자연으로 돌고 돈다'는 무지를 내세워 각종 쓰레기나 음식물을 땅에 묻고 물에 흘려보내다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농어촌 지역이지만 흙 마당 한 평 없는 주택과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아파트 거주민들이 늘고 있어 온갖 쓰레기는 특정 용기에 특정 장소에 모아져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 소통과 배려를 강조하는 공익광고가 끝나고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연예인들이 경쟁을 벌이는 TV 프로그램이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이와 다를 바 아니다.

중량계봉투 사용이 그것이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물품 재활용이라는 사회의 약속이 생겨난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 '빨간 불은 건너면 안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돼' 무조건 '안돼'를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되돌아 볼 일이다.

질서는 모두가 함께 지킬 때 비로소 제 몫을 다하고 최대의 편리를 발휘한다. 수려한 자연, 그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은 다양한 자연자원과 독특한 관광 상품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지역의 미래를 한층 아름답고 풍요롭게 완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며 흐뭇해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란에 피해를 입은 다른 손님들을 생각해

명품(名品) 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은 빼어난 자연도 건물도 먹을거리도 아닌 사람들의 바른 의식이다. 온 국민의 변화된 의식과 실천을 기대해 본다. <장흥군청 총무과>

학생 지도에 시간·에너지 쏟아야 공교육이 산다

정부에서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주는 학부모와 학생은 없다. 이유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에너지들을 쏟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과 시간표도 틀림이 잔다. 이밖에 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처리 에다 7교시가 있는 날은 오후 4시 40분, 8교시가 있는 날에는 5시 40분에 수업이 끝난다. 종례를 마치고 나면 하루에 두세 명씩 돌아가며 학생 면담을 한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조카의 하루를 들여다 보면 7시에 출근하여 0교시를 마치고 조회를 하고 나면 보통 4~5시간은 수업에 들어간다. 수업이 비는 시간에는 아이들 출결, 학생지도 등 사무적인 일을 처리한다. 학력 증진부라는 보직을 맡고 있어 방과 후 학교

사장이 학생들의 현장에서 순수하게 학생들을 지도한다 하는데 투자해야 할 에너지를 쏟는 게 무리라고 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교육이 제대로 서고,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쏠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 ▲좌혜경·광주시 동구 신수2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4 여론재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부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